

‘현우경’ 이야기 (39)

어느 비구의 전생

한 나라에 브라흐마타타라는 왕이 살았다. 왕에게는 두 명의 왕자가 있었다.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는 두 왕자를 모두 사랑했기에 어떤 왕자를 왕위에 앉힐 것인지 매일 고민했다. 어느 날, 아버지의 고민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아버님, 저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너는 왕위에 욕심이 없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속세를 떠나 도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청을 들어주시시오.”

왕은 작은 아들의 뜻을 굽힐 수 없어 속세를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 세월이 흘러 브라흐마타타 왕은 죽고 첫째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왕자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런 신하들은 왕들이 모두 죽자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아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지금 왕위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소.”

“예전 부왕에게 아들이 두 명이라는 소릴 들었소. 그 중 한명이 지금 왕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속세를 떠나 산중에 계시다 들었소. 그분을 찾아 왕위를 잇도록 합시다.”

신하들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던 둘째 왕자를 찾아 갔다.

“지금 이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부디 청하옵건대 왕자님께서서 왕위를 이어주시시오.”

“난 속세가 싫어 떠난 사람이오. 왕위를 이어받지 않겠소.”

“지금 왕자님께서서 왕위를 이어받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흉흉하오. 지금 왕이 된다면 내가 어떤 모함을 당할지 모르오. 난 싫소.”

하지만 둘째 왕자는 신하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왕위를 이어받기로 수락했다. 둘째 왕자는 궁으로 돌아가 왕이 됐다. 그런데 왕이 된 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방탕

음탕한 왕은 백성들의 칼에 맞아...



삽화·강병호

한 생활에 빠지기 시작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 매일 같이 궁녀들과 놀아나고, 신하의 부인들까지 탐했다. 심지어 왕은 나라의 모든 처녀들을 궁으로 끌어들였다. 그럼에도 그는 애욕을 절제하지 못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나라에 모든 처녀들은 혼인하기 전, 나와 하룻밤을 보내야만 혼인할 수 있다.”

결국 나라의 모든 처녀들은 집에 숨어 나오길 두려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한

복판에서 한 여자가 소변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수근댔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여자에게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아소. 여자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소변을 분단 말이요?”

“아니, 같은 여자끼리 무엇이 부끄럽다 그러시는 겁니까?”

“난 남자요. 어찌 나를 여자라고 하시오.”

“이 세상에 남자는 왕 단 한 사람 뿐이오. 왕을 받들지 않으면, 혼인도 하지 못하니 이 세상에는 모두 여자만 남은 것이지 않소.”

여자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맛소. 평생 혼인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오.”

“우리 모두 왕을 몰아냅시다!”

이 말은 온 나라에 순식간에 퍼져, 모두들 왕을 죽이기 위해 궁으로 향했다. 신하들 역시 사람들과 합심해 왕을 몰아내기로 했다. 그때 왕은 연못가에서 한가롭게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신하와 백성들은 연못가에 숨어있었다. 왕을 덮쳤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이라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왕은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당신은 음탕하기 짝이 없고 여자밖에 모르오.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라 할 수 있겠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소.”

왕이 말했다.

“그동안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잠시 애욕에 눈이 멀었지만, 이제 부른 나라를 잘 통치할 터이니 부디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

“설사 지금 우리가 당신을 죽이고 죽게 된다 해도,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소.”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앉힌 건 너희다. 분명 나는 산속에서 도만 닦으며 살고 싶어 했다. 억지로 나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죽이려 하는 것인가?”

신하들은 왕의 간절한 부탁에도 꺾이지 않았다.

“좋다. 나를 죽이거라. 대신 내가 도를 깨치지 전까지 나는 다음 생에서 너희들을 계속 죽일 것이다.”

결국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칼에 맞아 목숨을 다했다. 다음생에 다시 태어난 왕은 결국 살인자가 돼 자신을 죽인 백성과 신하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지만 훗날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비구가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41

- 배우는 자의 자세 -

구성-김홍인

옛날 인도 계빈국에 행실이 기이하고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잘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스님에게서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자가 많았다.

어느날 청빈하게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두 비구가 찾아와 배움을 청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기라 영불... 당가 지 당가... 들어와!”

그러나 그는 여자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설법은 말하자면... (이러 이러 중얼 중얼...)

“이봐! 도대체 내 얘길 듣는거야?”

“아름~”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뭘...?”

“에잇 엉터리!!”

“들잖아! 아니? 잘못은거 같아...!”

“저 여자는 신경쓰지마! 내 말에 집중해-!”

“아! 네~”

“자네도 어서 들어가보게나! 굉장해! 하하”

그리고 한참 설법을 들은 비구는 깨달음을 얻고 나왔다.

“이해 깨달음을 얻은 비구가 충고하였다.”

“그저 마음을 집중해서 법을 들으면 되지 왜 미리 울고 그름을 따져 소득이 없게 하는가? 다시 들어가보게!”

“그렇게 선견전에 얽매인 비구는 얻은 바 없이 떠났다.”

“들어나 마나지! 딱 보면 몰라?”

“시청각 교육을 해도 몰라... 저 친구는...!”

끝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동의보향 덩 증정행사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덩을 증정해 드립니다.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소량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차용
- 규격 : 북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자연에서 얻은 동의보향의 아름다운 향기는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달래어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향은 보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성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조원 수품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목각 단청 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크 기 : 높이 105cm 하단 가로 3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